



보도시점 2026.2.2.(월) 09:00

배포 2026. 2. 2.(월) 08:30

새로운 사업 기회, 산업재산정보로 찾는다! 시장 개척을 위한 '마중물' 역할 톡톡

- 2025년 산업재산정보 활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산업재산정보 활용, 서비스 개발, 전문인력 및 정책지원 수요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최초로 실시한 「2025년 산업재산정보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산업재산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4. 8. 시행)」에 근거하여 산업재산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 등 산업재산정보를 활용하는 기업·기관과 이들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기업을 구분하여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4달간 실시하였다.

※ 설문항목은 중요도 순으로 최대 3개까지 중복 투표 가능

< 산업재산정보 활용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의 주요 조사결과 >

산업재산정보를 활용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기업과 대학·공공연 모두 연구개발 방향 설정, 중복연구 방지, 권리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산업재산정보를 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공공연은 기업에 비해 기술이전 및 라이선싱 목적으로 산업재산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망 연구 분야를 탐색하고 기술이전을 위한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기업) 신사업·기술 전략 수립(49.4%), 출원 및 권리화(44.1%), 연구개발 방향 설정(40.6%)

** (대학·공공연) 출원 및 권리화(67.6%), 기술이전·라이선싱(55.9%), 연구개발 방향 설정(40.6%)

또한, 기업·기관 모두 정부에서 제공하는 산업재산정보 관련 DB(이하 '국내 공공DB')를 활발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업·기관이 국내공공DB를 통해 더욱 유용한 정보와 전략 등을 얻을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고부가가치 정보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과 기관은 산업재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과 데이터 활용역량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므로, 신규 전문인력양성과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 지원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맞춤형데이터, 전산자원(GPU, 클라우드서비스 등)과 같은 산업재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환경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 (기업) 전문인력 부족(44.5%), 데이터 활용역량 부족(35.9%), 맞춤형 정보 부족(29.2%)

** (대학·공공연) 전문인력 부족(44.4%), 맞춤형 정보 부족(40.8%), 데이터 활용역량 부족(40.5%)

< 지식재산정보서비스기업의 주요 조사결과 >

지식재산정보서비스기업은 주로 중견·중소기업 고객(46.5%)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정보검색·분석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았는데, 향후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사용자) 중견·중소기업(46.5%), 소상공인·개인(17.4%), 대기업(12.1%), 대학·공공연(9.8%)

** (매출) 정보검색·분석(68.7%), 전략지문·기초평가(18.8%), 데이터관리·시스템구축 등(7.8%)

*** (인공지능도입) 번역(53.5%), 검색(51.2%), 기술·시장분석(38%), 권리화 지원(34.6%)

또한, 지식재산정보서비스기업은 인건비 부담(62.3%), 수익구조 불안정(40.2%), 기술도입 비용부담(31.8%) 등에 직면하고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창업에 집중된 지원정책을 창업 이후 사업안정화 단계까지 확대하여 지원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출된 개선사항을 지식재산정보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우리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분야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해 파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 산업재산정보 활용 실태조사결과는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지식재산처 누리집 > 책자/통계 > 간행물 > 정책용역, 연구보고서

※ 붙임: 2025년 산업재산정보 활용 실태조사 개요

담당 부서	지식재산정보국	책임자	과 장	윤기웅 (042-481-5460)
	지식재산정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류호길 (042-481-5084)

☐ 조사 목적

- 민간(기업) 및 공공(대학·연구소 등)의 산업재산정보 활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 조사 방법

- (기준시점) 2024년 12월 31일
- (조사기간) 2025년 7월 21일 ~ 2025년 11월 20일(4개월)
- (조사방법) 웹(Web) 기반 온라인 조사시스템 및 E-mail, Fax 활용

☐ 조사 대상

- ①산업재산정보 활용기업·대학·공공연 및 ②지식재산정보서비스기업
 - (활용기업) 31,975개*(조사모집단) / 1,050개(표본)
 - * 최근 3년('22년 - '24년) 간 특허등록 건수가 1건 이상인 기업 중, 산업재산권 출원건수가 1건 이상인 기업을 정제하여 추출(법인번호 중복, 폐업기업 제거 등)
 - (대학·공공연) 353개*(전수조사)
 - *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4호 유형에 따른 공공연구기관(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
 - (정보서비스기업) 1,239개(조사모집단) / 250개(표본)

☐ 조사 내용

대상	산업재산정보 활용기업·대학·공공연	지식재산정보서비스기업
조사 항목	① 일반사항	① 일반사항
	② 산업재산정보 활용 및 인프라 현황	② 지식재산정보서비스산업 현황
	③ 산업재산정보 활용에 대한 성과	③ AI기술 도입 현황
	④ 산업재산 정보에 관한 인식	④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에 관한 인식
	⑤ 산업재산정보 활용 관련 정책지원 수요	⑤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 관련 정책지원 수요